

수구이념의 특징: 보수이념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 나 미*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구’라는 개념은 보통 ‘보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언급되며, 대체로 불합리하거나 완고한 것이라는 함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시사적 논쟁을 통한 것이며 학술적 논의는 그동안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더불어 수구의 대안적 개념, 그 이념의 특징, 지지기반 등을 보수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구 이념의 대안적 개념들로는 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를 들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이분법적 세계관을 들 수 있다. 보수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체계 내지 질서로 보는 반면 수구 이념은 세계를 두 개의 영역으로 본다. 즉 자신의 영역을 이상적 세계로, 다른 영역은 열등하거나 악한 세계로 인식하여 이 두 세계는 서로 투쟁하는 관계로 파악한다. 이러한 수구 이념의 특징은 수구의 두 번째 특징인 유토피아니즘으로 나아가게 한다.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을 불신하므로 이러한 이성애 따른 이상사회 건설 즉 유토피아니즘을 반대한다. 그러나 수구 이념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치상 이상을 추구한다. 단, 그것이 진보와 다른 것은 유토피아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으며 그 목표는 ‘좋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다. 셋째 보수주의는 실리를 중시하는 반면, 수구 이념은 원리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는 실리 이외에 고수해야 할 원리가 없으므로 변

* 연세대학교

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리가 있으며 특히 경전이 존재한다. 경전은 무오류이며 완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수구 이념은 경전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실리의 문제 뿐 아니라 생사의 문제까지 뛰어 넘고자 하는 극단주의가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반면 보수주의는 안전을 중시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세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수구 이념은 본래의 원칙과 전통의 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다른 모든 개혁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완강히 변화를 거부한다. 반면 보수주의는 버크의 사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을 존중하는 전통을 갖고 있으며 수구 이념과 달리 남녀차별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구 이념을 지지하는 계층은 주로 사회 내의 주류가 아닌 주변화된 남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는 귀족 등 사회 주류 계급이 지지하는 이념이라면 수구 이념은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고용의 상태의 남성 엘리트들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수구 이념은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을 저해하였기 때문에 도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수구, 보수주의, 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

1. 머리말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구’라는 개념은 보통 ‘보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언급된다. 대체로 보수는 합리적 요소를 갖고 있는 반면 수구는 불합리하거나 의사소통이 안되는 완고한 것이라는 함의가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 수구만 있었지 보수는 없었다고 하는 학계나 언론의 주장¹⁾은 개혁에 반대만 하는 한국사회의 보수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1) “단지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더 정확하게는 수구적 세력만 존재해왔다는 것이 그간 흔히 한국의 보수주의에 대한 많은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었다.”(홍덕률 2003,

것인 한편 이러한 수구·보수의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구의 존재를 정립함으로써 보수의 긍정성 더 나아가 보수의 정당성까지 부각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렇다면 과연 수구는 극복되어야 하고 보수는 지켜져야 할 가치인가. 이러한 수구와 보수의 개념 구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수구 내지 수구파, 수구당이란 용어가 한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태진에 의하면, 구한말 일본의 조선 침략이 추진되면서 일본이 친일개화파를 옹호하고 반대세력을 비판하기 위해 반대파에게 이 이름들이 붙여지면서부터이다.²⁾ 구체적으로, 수구파는 임오군란 당시 대원군 세력 세력을 지칭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갑신정변 전후로는 친청파에게 붙여졌다. 그런데 갑신정변 이후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원군이 일본에 의해 옹호되고 명성황후 측이 수구파로 비난된다. 따라서 수구파는 일관된 개념이기 보다는 일본이 그때그때 자신의 반대파를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 들어온 수구란 개념이 보수와 구분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도 일본에 의해서이다. 초기에 일본에서는 ‘conservatism’이 ‘수구주의’로 번역되는 등 보수주의와 구분되어 쓰이지 않았다(이태진 2003, 55). 그러나 명치 10년 7월 28일 『동경일일신문』에서, 수구가 한결같이 “자유의 원적(怨敵),” “민권의 원수,” 불평하는 무사들의 봉건 반동의 이미지로 여겨지는 풍조 속에서 수구가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글이 실린다. 또한 “보수의 옳음을 알아도” 보수를 지향하면 “개진(開進)의 예봉이 둔화되어 수구에 빠지기 때문에” “보수를 원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 등 수구가 보수와 구분되어 쓰이기 시작한다(이

50). 양승태에 의하면, 수구는 보수보다 어의가 강하면서 일상적으로 가치비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보수나 수구라는 말 자체에 본원적으로 가치비하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이유는 없다(양승태 1994).

2) 이태진(2003, 56). 이어지는 19세기 말의 수구 개념에 대한 설명 역시 이태진(2003) 참조.

태진 2003, 56).

현대 한국사회에서 수구가 보수와 비교되면서 사회 발전을 위해 극복되어야 할 이념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사상계』에서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사상계의 글들을 보면 1960년대 초반까지는 보수와 구별되는 수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보수주의 일반에 대한 비판적 글들을 실었다. 그러나 1964년 “진진적 보수주의: 현대보수주의의 내용에는 진보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김영선 1964, 84-90)를 시작으로 “수구와 반동을 극복한 보수당: 영국노동당과 보수당”(이극찬 1964, 92-100) 등의 글에, 수구와 보수를 나누고 보수는 수구를 극복하여 진보적 원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이기 시작한다.³⁾ 현재 한국사회의 수구·보수 논쟁은 이러한 논의에서 별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수구에 대한 시사적 논쟁이 아닌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⁴⁾ 보수 및 보수주의에 대한 논의는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주장은 개혁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상계를 포함한 그 이전 논의와 거의

3) 1960년대 중반은 박정희가 민정이양의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취임하여 장기집권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서, 사상계가 보수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이러한 글들을 실었다고 짐작된다.

4) 수구에 대해서는 거의 신문이나 시사잡지에서 다루고 있으며, 학술지에서의 수구에 대한 논의는 조선 말기 개화파에 반대하는 수구파에 대한 것이 전부이다. 이것조차도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태진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수구, 개혁의 구분이 물고 온 과장이 이렇게 크다면, 그 구분이 생긴 과정이나 그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누군가 한번쯤은 했어야 했다. 그러나 필자가 아는 범위에서는 아직 그런 검토를 접하지 못했다. 오히려 근대사에 관한 사료를 뒤지면서 이런 구분이 연구자들의 연찬의 결과가 아니라, 조선 정국에 대한 일본 정보망의 탐문 보고가 그 진원지란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 침략주의의 호, 불호에 따라 정치사의 흐름이 논단되었다면 그 자체에 대한 검토부터 할 필요가 있다.”(이태진 2003, 54). 또한 최치원은 “수구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수주의의 철학적 기반, 전통, 권위, 문화의 복원을 꾀하는 일련의 보수주의 연구자들의 관심에 일정부분 답하는 것일 수도 있다”(최치원 2008, 181)고 하였다.

다르지 않다. 그러나 보수와 구분되는 수구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보수와 뚜렷이 구분되는 수구가 원래 존재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수구가 단지 보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정도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사회가 안정 내지 정체된 시기에는 보수 세력과 수구 세력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큰 변화에 직면하여 이를 위기로 느끼고 대처하는 태도에서 보수와 수구가 나뉜다. 외세의 위협과 근대화의 요구에 직면하여 조선의 엘리트들이 수구와 개화로 나뉘었으며 프랑스 혁명에 직면하여 보수주의자 버크와 반동주의자 드메트르의 주장이 갈리었다. 이때 수구 이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 이념과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논문의 목적이 바로 이러한 수구 이념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한말 수구파의 이념 및 이와 유사한 서구 이념들 즉 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보수주의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의 시도는, 이제까지 학술계와 언론계에서 그래왔듯이 보수주의자들에게 개혁을 촉구하거나 또는 보수주의를 정당화,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구·보수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사회적 비교 고찰을 통한 학술적 논의의 시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구한말 수구파는 보수적이요 개화파는 개혁적이라는 구도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 수구파·개화파의 구분이,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자신의 정치적 호·불호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화파의 사상과 활동을 살펴보면 개화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그러하듯 이들이 과연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회의스럽다고 하겠다. 개화파는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하긴 했으나 일관되게 엘리트주의적이었고 동학 등 당시 평등을 추구하는 아래부

터의 혁명적 움직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즉 당시 개화파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 대한 변혁을 주장했다기보다는 자신들과 같이 능력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적 개혁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혁명을 이끌어낸 서구의 계몽주의자들이 갖는 성과와 한계를 똑같이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부분적 개혁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부분적 개혁을 수용하자는 주의이다. 또한 실제로 개화파들은 보수주의(conservatism)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이나미 2001, 69).⁵⁾

개화파를 개혁적인 측면에서만 보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개화파 일부가 일본의 근대화를 본받자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된 시점 이후에도 일본에 계속 협력하고자 했다는 데에 있다. 많은 개화파들이 조선의 근대화라고 하는 초기의 입장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조선 합병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가 심화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일본에 협력적이었다. 반면 수구파는 유교 원리의 고수를 위해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사상적으로 한계를 갖지만 당시 사회변혁이라는 명분으로 일제 침략을 용인하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여 자결 또는 의병항쟁을 벌인 애국자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당시 수구파에 대해 오늘날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는 수구 개념을 여과없이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더불어 수구의 대안적 개념, 그 이념의 특징, 지지기반 등을 수구 이념 및 이와 관련된 서구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보수주의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⁵⁾ 남시욱은 이들 개화파의 사상을 한국 보수주의의 원조로 보고 있다(남시욱 2005).

2. 수구 이념의 대안적 개념들

‘수구(守舊)’의 의미를 풀어보면 ‘옛 것을 지킨다’는 것으로, 수구는 앞서 보았듯이 개화파에 반대하여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기 위해 쓰여졌다. 즉, 구한말 서구 문물의 수용과 더불어 이것을 받아들여 사회를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서양과 일본을 물리치고 전통을 오히려 더 굳건히 지킬 것인가 하는 논쟁이 첨예하게 대두되었는데, 이때 유교적 전통을 고수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세력이 수구파로, 일본을 포함하여 외래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세와 협력해야 한다는 세력은 개화파로 불려졌다. 또한 당시에 개념적으로는 수구가 보수와 구분된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의 보수·수구 개념도 마찬가지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당시 당파들의 태도와 지향을 본다면, 전통을 지키자는 세력을 수구파로, 개화하자는 파를 보수파(개혁파가 아닌)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서구나 다른 문화에서 보여지는 수구·보수 구분과도 일치한다. 서구에서 보여지는, 보수와 구분되는 수구의 이념으로, 반동주의(reactinary), 근본주의(fundamentalism), 정통주의(orthodoxy)를 들 수 있다. 반동주의는 정치에서의 수구, 근본주의와 정통주의는 종교 및 문화에서의 수구라고 할 수 있으며, 반동주의는 과거의 정체 및 질서로, 근본주의는 근본 원리로, 정통주의는 원래의 교리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모두 옛 것을 지킨다는 수구의 의미와 같다. 이 수구적 이념들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을 때 변화에 대한 완전한 반대를 표명하고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자 하여, 부분적 개혁을 수용하는 보수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보수는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나 변화의 강한 움직임에 직면했을 때 일부 개혁을 수용함으로써 급격한 변혁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반동주의, 근본

주의, 정통주의는 보수주의와 차이를 보이며 수구 이념과는 일치한다고 하겠다. 각각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동주의를 살펴보면, 반동주의는 현상유지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이는 수구 이념 또한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것이다. 수구가 ‘옛 것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옛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역사를 이상적인 상태로부터의 타락과정으로 보았다(강정인 1997, 18). “이상적 정치질서의 전형으로 유가 경전에 등장하는 요-순-우-탕-문-무의 시대가 역사상 분명한 사실로 존재하였고, 그것은 최고의 문명국가였으며 실제로 중화문명이 우주만방에 펼쳐졌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미 문·무가 실현했던 최고의 문명국가건설이 최익현/유인석이 가려는 이상”이었다(장현근 2003, 38).

반동주의 역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의로서, 이러한 반동주의의 내용은 개혁을 일부 수용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와 구별된다. 보수주의는 버크(Edmund Burke)식 보수주의와 드메트르(Joseph de Maistre)식 보수주의로 나뉘어지기도 하는데(Viereck 1981, 14-16) 전자는 보수주의, 후자는 반동주의로 볼 수 있다. 두 입장 모두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나, 버크는 변화를 어느 정도 용인하여 융통성이 있었고 입헌주의자요 의회주의자였다. 또한 『Le Conservateur』를 발간한 샤토브리앙(Chateaubriand)은 입헌군주제 이전 시대로의 회귀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헌군주적인 권위와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잡지를 창간했다(최치원 2008, 180). 반면 버크와 달리 드메트르는 반동주의자로서 군주제와 권위주의를 옹호했다. 우리 역사의 수구파 역시 군주제를 옹호했는데 그 이유는 군주제가 공화제보다 더 공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이러한 반동주의의 특징은 수구 이념의 특징과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근본주의는 참 종교를 실현한 완전한 사회가 과거에 존재한 것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수구의 이념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급진적 신교도들의 주장은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이상적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이슬람의 경우 이상향은 17세기 메카와 메사다이다(Bruce 1989, 14). 따라서 근본주의는 현상유지적이 아니라 반동적이다.⁷⁾ 기독교와 이슬람에게 근본주의가 있듯이 구한말 서구와 일본에 반대한 수구파 내지 위정척사파는 유교근본주의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늘 근본을 강조하고 근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유교의 주장은 수구를 말 그대로 근본주의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⁸⁾

근본주의란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The Fundamentals of the Faith」라고 하는 팜플렛이 출판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근본주의 주장자들은 복음주의의 기독교도들로서 자신들의 생각을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시대정신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듯 근본주의가 처음에 사용될 때에는 신교의 반근대주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Bruce 1989, 10). 따라서 근본주의란 본래 기독교근본주의를 줄여 말한 것으로, 기독교근본주의는 기독교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과학과 공존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완강한 기독교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근본주의자들은 부시의 반이슬람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부추겼는

6) 즉 유인석은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어 황제로 삼아 그가 죽은 후에 바꾸는 것이 좋지, 사람을 자주 교체하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이 서로 뺨치려고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총통(대통령)뿐 아니라 임원들도 사익을 위해 무리를 지어 싸울 것이고, 총통은 그저 아랫사람의 결정만 거두어들이는 것들을 규제할 수 없으니 그들을 막을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원의 경우도 국민의 대표라고는 하지만 그는 국민의 힘으로 후한 봉록을 받고 자유를 혼자만 누릴 뿐 국민은 동요되고 억압을 받으니 오히려 지극히 곤궁하게 된다고 하였다(유인석 1913, 8-9).

7) 브루스(Bruce)는 근본주의가 반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Bruce 1989, 14).

8) 유인석의 척사론은 성리학적 세계와 가치를 부식시키는 모든 사조와 세력침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교조주의로 평가되기도 한다(강재연 1983, 209).

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신앙이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과 공존을 불허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태도에서 이슬람근본주의란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슬람근본주의는 서구와 서구의 자유주의 수용을 강하게 반대하고 이슬람 원리와 전통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이슬람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개혁을 자체적으로 시도했으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근본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⁹⁾

근본주의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부터이며, 그 주된 목적은 이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⁰⁾ 특히 주된 비판 대상인 사회주의가 사라지고 나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근본주의 연구가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된 1988년은 냉전 종식을 알리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슬람근본주의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기독교근본주의까지 연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둘을 비교하기도 했는데 브루스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전근대적이고 공동적이고 신교 근본주의는 개인적이고 근대적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Bruce 1989, 10) 서구중심적 사고를 보였다. 그러나 그 보다는 기독교근본주의가 팽창주의적 근본주의라면 이에 맞서고자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는 민족주의적 근본주의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 하나의 신을 섬기는 종교에서 광신주의를 볼 수 있지만 힌두교나 불교 역시 과격한 근본주의자가 존재한다(Bruce 1989, 5). 불교는 관용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스리

⁹⁾ 또한 이를 시장과 자본주의에 적용하면 시장근본주의 역시 시장적 질서를 강하게 표방하고 어떠한 개혁도 반대하는 근본주의적이고 수구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¹⁰⁾ 20세기 말에 이란혁명을 지칭하기 위해 근본주의란 용어가 다시 대두되었다. 이때 근본주의는 종교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특정의 생활방식을 옹호하거나, 공공정책을 종교적 신념을 표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Bruce 1989, 12).

랑가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독립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승려들이 폭력적으로 이를 진압하려고 하는 것이다(Bruce 1989, 6). 이는 우리의 호국불교를 볼 때도 마찬가지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본주의 연구에 있어서 문제는 유교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근본주의 연구에는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가 포함이 되고 있으나 유교가 없다. 그러나 유교 역시 근본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서구 문물의 영향을 우려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격렬히 저항한 의병운동을 포함한 수구파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수구는 정통주의로도 해석될 수 있다. 정통주의는, 정치적으로는 구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종교적으로는 교리에 수정을 가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주의를 의미한다. 특히 정통주의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흔히 언급된다. 유대교는 보통, ‘정통파(orthodox),’ ‘보수파(conservative),’ ‘개혁파(reform)’로 구분되는데, 정통파는 앞서 언급했듯이 엄격한 교리 준수가 특징인 반면 보수파는 어느 정도의 개혁을 용인하는 입장이다(Grubel 2007, 150-166). 따라서 이를 보더라도 보수의 개념은 수구와 개혁의 중간적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교의 정통주의 역시 개혁의 움직임에 맞서 무조건 반대하면서 등장했으며 반면 보수주의는 선택적 반대를 함으로써 정통주의와 차별성을 보여준다.

3. 수구 이념의 특징

수구 이념을 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이념들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그 주된 특징을, 이분법적 세계관, 유토피아니즘, 원리주의, 극단주의, 성차별 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보수주의와 매우 다른 점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분법적 세계관

보수주의적 입장은 세계를 하나의 체계 내지 질서로 보는 반면 수구적 입장은 세계를 두 개의 영역으로 본다. 예를 들면, 보수적 결론으로 귀결되는 파슨스의 구조기능론적 사회관은 세계를 질서잡힌 하나의 체계로 본다. 따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는 하나의 조화된 사회를 위해 교정되거나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맑시스트 이론가 등 갈등이론가들은 사회를 두 개의 집단이 갈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다.¹¹⁾

수구 이념도 마찬가지로 세계를 두 개의 영역으로 본다. 이슬람근본주의의 경우, 하나의 세계는 이슬람의 영역이고 그 나머지 세계는 ‘전쟁의 영역’으로, 모슬렘의 의무는 후자를 없애서 전자를 확대하는 것이다(Bruce 1989, 45).¹²⁾ 기독교 역시 자신과 다른 영역에 대해 그렇게 보았다. 먼슨(Munson)에 의하면 근본주의자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자

11) 리오타르는 파슨스의 이론이 사회의 갈등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사회를 두 개의 갈등하는 영역으로 본 맑스의 사회관을 보다 진전된 이론으로 본다. 그는 사회를 여러 가지 다원적 집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포스트모던적 사회관을 지지한다(Lyotard 1992).

12) 브루스는, 이같은 이분법에 대해, 이슬람 세력이 커지는 9세기와 12세기에 이슬람의 영역이 매우 팽대하여 비이슬람 세계를 접촉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이해가 가는 사고이지만, 19세기에 와서 오토만 제국이 쇠퇴해가면서도 ‘전쟁의 영역’에 대해 자신의 영역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식했다고 지적하였다(Bruce 1989, 45).

신들을 하느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들로 본다(Munson 1984, 20-21). 그리고 이러한 투쟁을 정치적인 것 뿐 아니라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Antoun 2001, 21). 유교가 서구를 금수로 파악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자신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을 동물주의로 비유하기도 했다. “동물주의의 물결이 오늘날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것으로, “타락한 현대 무용, 관능적인 현대 연극, 육체를 찬양하는 현대 양식, 성을 암시하는 현대 문학, 아기 대신 개 양육, 끔찍한 이혼의 해약”을 예로 들었으며 “이 모두는, 세상에 널리 퍼진 진화론의 타락한 동물주의 철학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Straton 1924)는 것이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을 동물적인 것, 열등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교에 고유한 것으로, 유교는 서구를 금수의 집단으로 보았으며, 구한말 유교의 화이관은 서구와 일본을 인간이 아닌 것, 열등한 것으로 파악했다¹³⁾ 종교는 민족간 차이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인종적, 민족적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종교는 우리자신은 우월자로 적은 열등한 자로 보는 것을 정당화한다(Bruce 1989, 9).¹⁴⁾

2) 유토피아니즘

수구파는 열등하고 사악한 영역에 맞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유토피아론자가 된다. 유토피아를 전제하고 이를 추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구와 보수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13) 이항로는 천하의 커다란 구분의 첫 번째가 화이(華夷)의 구분이라고 했다(장현근 2003, 39).

14) “사람들은 저들이 조화를 부린다 하여 기뻐하는데 천지의 조화에는 성리와 형기가 있는 것이다. 형이상·하로 볼 때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형기의 하일 뿐으로서 그와 같은 것은 조화의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니, 참으로 망극한 것이다... 옛 성현의 도리는 성리를 위주로 한다. 근본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멀고 오랜 것을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중화를 이루어 천지가 바로 서고 만물이 길러진다(유인석 1913, 74).”

서구에서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여 탄생한 이념으로, 보수주의는 혁명의 과격한 수단 뿐 아니라 혁명이 내건 평등주의적 합리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이념으로 등장하였다. 혁명은 인간과 사회의 거대한 재구성을 위한 전략이며 유토피아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혁명을 반대하는 보수주의는 반유토피아적 견해를 가지며, 이상적인 비전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인간의 능력을 의심한다.

반면, 본래 근본주의는 종교적 신념과 실천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세계의 재편성을 꾀하는 정치적 이상까지 종종 포함한다. 종교는 현재 세상의 지배자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Bruce 2000, 1). 이들은 단지 현 상태를 지키고자 하는 보수가 아니라 과거를 다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저항의 목적은 초기 신앙공동체의 열광과 맹세를 다시 구현하려는 것이다(Bruce 2000, 14).¹⁵⁾ 따라서 안정과 질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수주의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보수는 유토피아를 부정하나 수구의 경우 유토피아를 갈망한다. 유토피아를 꿈꾼다는 측면에서는 수구는 진보와 동일하다. 그러나 후자의 유토피아는 미래에 있는 반면 수구의 유토피아는 수구란 말이 보여주듯이 과거에 있으며 그 목표는 ‘좋았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다.¹⁶⁾ 따라서 종교적 성향을 가진 이들 수구파들은 유교 신봉자라면 요순시대, 기독교인이라면 원죄없는 타락이전

15) 말년에 유인석은 제왕·성현의 이상국가를 실현함으로써 서양이 흠모하고 복종하게 하려 하였다(김형찬 1993, 267).

16) 기독교인에 있어서 ‘죽음 뒤의 구원’이라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예수를 믿는 신자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인류역사의 일반적 미래는, 기독교에 특징적인 ‘종말론’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비관적이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구원은 과거의 원죄없는 시절로 돌아가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간적으로는 미래이지만 그 이상적 형태는 과거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인간 사회를 꿈꾸게 된다.

흔히 개화기 수구파에 대해 사대주의라는 오명이 붙지만 이러한 유토피아니즘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정치적 의미의 사대주의로 볼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성지 동경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이 중국을 숭배하고 자신을 소중화라고 자처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중국이 공자, 맹자가 난 종교적 성지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자신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에 온 기독교도인들은 자신들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인들로 생각했다. 몰몬교의 스미스(Joseph Smith)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했다(Ruthven 2004, 128). 즉 미국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국민에게 약속된 땅으로 생각했다(Ruthven 2004, 129). 로벗슨(Pat Robertson)은 미국이 하나님의 계율을 따르는 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로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Ruthven 2004, 129), 콜로라도 주지사인 길핀(William Gilpin)은 1846년에 “미국인의 운명은 미대륙을 정복하고 세계를 하나의 가족으로 통일하는 것”이라고(Ruthven 2004, 128) 했다. 이것을 루스벤(Ruthven)은 미국 민족주의라고 부르지만 이는 제국주의가 더 적당하다고 하겠다.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종교와 애국심 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Ruthven 2004, 129).

미국 근본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편향되게 지지하는 이유도 자신이 “성서적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하느님이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땅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하면 “그 땅은 팔레스타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사우디인이나 시리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Ruthven 2004, 165)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스라엘 숭배는 구한말 수구파가 중국에 대해 생각

한 것 보다 덜하지 않다. 어찌 보면 수구파들의 사대주의는 중국이 단지 지형이 좋고 성현이 많이 탄생하여 성인의 도를 잇고 있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한 중국은 오랑캐에 의해 성인의 도가 다했고 그 맥이 조선에 와서 조선이 그 도를 잇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중화 의식은 오히려 민족주의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유인석 2006, 154).

3) 원리주의

보수는 실리를 중시한다면, 수구는 원리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특별한 원칙을 신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이론가는 보수주의를 심지어 이념이 아닌 어떤 심리상태, 욕망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실리주의이다. 이는 공리주의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원리로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원리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재산을 자랑으로 여기며 재산으로부터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비판을 당할 때는 재산을 옹호해주는 보수주의자의 논의에 도움을 구하게 된다. 보수적이라는 말에 종종 주어지는 악명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Viereck 1981, 19). 현대 보수주의는 그 사상적 기초를 자유주의에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종종 신보수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전제는 인간 이기심의 긍정이다.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인 사회계약론자와 공리주의자들은 모두 자신의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당연시했다. 특히 공리주의의 경우 사회규범을 포함한 추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존재가치가 판단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실리 이외에 고수해야 할 원리가 없으므로 변

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다. 버크는 변화가 불가피한 현실과 타협했다는 점에 반동주의자인 드메트르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도 살아남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주의의 힘은 그러한 ‘타협’과 ‘변화를 용인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버크에 의하면, 변화는 불가피한 자연적 현상의 일부이며(이수석·김병곤 2002, 128),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다. 그는 국가가 그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보존하고자 하는 헌정을 상실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보존과 교정이라는 두 원리는” 위기의 시기에 강력하게 작동했다고 주장했다(버크 2008, 65). 현재 아무도 드메트르를 비롯한 완고한 비타협적 반동주의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항일독립투쟁의 이념 중에서 의병운동의 유교 이념이 사라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수구 이념은 외부의 억압이나 민주주의의 이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민의를 통해 자연적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친일파의 거두 이완용의 경우 본래 위정척사파로서 갑신정변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나 시대에 따라 친러, 친미, 친일로 변신하면서 당시 가장 강한 세력에 편승하여 살아남는 묘기를 보여준다. 보수주의의 주요 내용인 실리주의만이 그의 원칙이었다. 또한 변화에 대한 관점도 비교가 된다. 이완용은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했으나 유인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조선이 조선일 수 있는 까닭만은 결코 버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조선은 “삼사천 년의 단군·기자의 강토이며, 오백여 년의 성신문치(聖神文治)의 나라이며, 희(羲), 농(農), 당(唐), 우(虞) 이래 화맥이 기거하던 곳, 이름하여 소중화 예의의 나라”였다(김남이, 2003: 313-314). “우리나라만이 특별히 우뚝 서서 화를 회복하여 군세게 변치 않아 수백년의 오랜 세월 동안 문명을 드리우는데 이를 수 있었으니, 천하 만고에 화를 이룬 것이 유

독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유인석 2006, 50).

이렇듯 수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리가 있으며 특히 경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오류이며 완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독교 근본주의의 특징은 성경의 모든 세부적인 구절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며, 이슬람 역시 코란은 모든 문자가 신의 영원한 말이라고 본다(Bruce 1989, 13). 중세에 성경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근대 이후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졌다. 근본주의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Bruce 2000, 13). 경전 구절은 일상생활 중에, 토론 중에 인용되며 특정 믿음과 실천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Antoun 2001, 39). 유교의 경우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경전이 있다. 위정척사파 학자들은 정통 유학의 계승자임을 자부했다. 그들은 유가의 전적들을 종교적 성전으로 받아들였으며 모두 사실로 인식하였다(장현근 2003, 38).

4) 극단주의

수구 이념은 경전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실리의 문제 뿐 아니라 생사의 문제까지 뛰어 넘고자 하는 것이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보수는 안전을 중시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세에 따른다. 그러나 수구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변화를 용인하지 않으므로 극단적이다. 유인석은 “이기고 지는 것과 이득과 손실은 내 알바가 아니요 의리의 길을 갈 뿐이라” “지금 저 왜의 잔학함으로 인해 백성들은 절치부심하여 읊읍마다 봉기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일본을 죽이고 진사(盡死)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칠실분담. 김남이 2003, 312에서 재인용).

외세의 공격에 직면한 약소국의 경우 민족주의적인 근본주의가 보다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구한말 조선의 위정척사파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주의는 그 이념은 종교적이거나 단지 종교운동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주의는 세계를 바꾸려는 운동이며 간혹 폭력을 수반한다. 종교는 인종, 민족 갈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며 그것은 심지어 같은 종교 내부에서도 발생한다 (Bruce 1989, 8).¹⁷⁾

따라서 근본주의는 급진주의와 의미도 같으며 행동양식도 같다 (Bruce 1989, 14). 전통주의와는 오히려 다르다. 전통주의자라면 옛 종교가 보존되어 그들에게 영감과 상징을 제공해주면 충분하다. 그러나 근본주의는 단지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과거를 지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전통의 지속을 위협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과거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통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저항의 목적은 초기 신앙공동체의 영광과 맹세를 다시 구현하려는 것이다 (Bruce 1989, 14).

이렇게 근본주의와 구별되는 전통주의는 보수주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주의는 인간한계의 인식과 더불어 세상과 우주를 하나의 질서잡힌 틀로 본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과 세계의 대세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질서와 평화를 강조하지만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별로 크지 않다. 어차피 이들은 세상은 불평등한 것이고 한계가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7) 예를 들면 기독교 근본주의의 폭력성은 KKK단 등에서 나타난다 (Bruce 1989, 7).

그러나 근본주의는 극단적 보수주의, 가장 보수적인 종교집단의 입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Bruce 1989, 12) 대체로 비난의 성격이 짙은 개념이다. 특히 종교에 있어 자유주의자들이 지적 미성숙을 지적하기 위해 쓰이기도 한다(Bruce 1989, 12). 따라서 이 용어의 사용은 기피되며, 전통주의 또는 이슬람주의란 말을 쓰는 것이 제안되기도 하고, 또는 급진주의, 극단주의 등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근본주의는 확고하게 자리잡은 용어라서 이를 제거하기는 어렵다(Bruce 1989, 13).

5) 성차별

수구 이념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성차별 문제이다. 구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반동주의, 원리와 전통을 중시하는 근본주의와 정통주의는 모두 본래의 원칙과 전통의 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다른 모든 개혁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완강히 변화를 거부한다. 수구에 대해 가해지는 현대사회의 비난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성차별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전통의 고수는 문화적 상대주의나 관용의 입장에서 묵인 내지 수용될 수 있으나 여성 차별 더 나아가 여성 학대의 경우 인류가 그동안 동의해온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이념은, 만일 수구와 구분하여 볼 경우, 이제까지 알려진 바처럼 그토록 여성을 폄하하지는 않는다. 버크의 경우 오히려 여성을 존중하는 영국의 오랜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또한 여왕 또는 왕족의 여계 세습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중요한 세습의 전통으로 인정했다(버크 2008, 69-70). 버크는 프랑스 혁명 과정에 있어서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여군주와 같은 고결한 성정을 가졌음에도 여성을 하찮게 여기는 프랑스 민중에

의해 유린된 것을 통탄했다(버크 2008, 141-144).

보수가 여성에 대해 비교적 열린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성이 큰 도전 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득권층의 여성들이나 재산을 가진 여성에게 권리를 줄 경우 기득권층의 세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부가적 장점이 있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 여성참정권을 주장한 반면 노동자나 무산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보인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 어떤 변화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수용되는 부분이 여성의 권리문제이다. 또한 자본주의 발전,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더불어 여성 노동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용인하는 실리적 이유도 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이 하층민 여성까지 포함한 개혁 또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여성관은 근본주의 등 수구 이념과 확실히 차이가 난다.

수구 이념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며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주장으로 여성을 포섭하려 하며(Lawrence 1990, 236) 성차별을 정당화한다. 드메트르는 여성의 종교적 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으나 ‘여성은 여성인 한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며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려고 한 순간 여성은 원숭이가 된다’고 역설했다(Griffin and Feldman 2004, 246). 정통주의 역시 보수주의와는 다르게 남녀차별을 엄격히 지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정통파 유대교와 달리 보수파 유대교는, 1840년대 라비회의 이후 여성의 완전한 평등권을 향해 노력하는 유대교 방침에 호응하여 개혁파 못지않은 열의를 보였는데(그뤼벨 2007, 158) 정통파는 이러한 경향에 완강히 반대했다.

수구 이념이 여성 차별을 당연시하는 이유는 종교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대다수 종교는 여성의 지도자적

지위를 허락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여성은 생명권조차도 존중되지 못한다. 특히 조선말기 수구파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또는 사망한 남편을 따라 자결하는 여성의 자기희생을 들어 서구 문화에 대한 유교의 우월성을 자주 강조했다(김남이 2003, 298).¹⁸⁾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어야 하는 인도의 사티(sati) 풍습은 영국 통치를 겪으면서 거의 사라졌으나 아직도 일부 지방에서는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 의식을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의식은 종종 그녀의 재산을 탐내는 친척들에 의해 강제로 치러졌다.

이러한 극단적 형태의 성차별적 요소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보수주의와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4. 수구 이념의 계급적 기반

이제까지 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로 불릴 수 있는 수구 이념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내용의 특징, 특히 보수주의와 다른 점을 보이는 특징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가. 이는 수구 이념을 지지하는 계층, 즉 계급적 기반을 살펴보면 부분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구와 달리 보수 이념의 지지 계층은 귀족 계층, 즉 사회 내의 주류이다. 보수주의는 인간이성을 불신하고 혁명을 반대하므로, 사회 내

¹⁸⁾ ‘남편을 따라 죽었다’는 점만을 가지고 “오랑캐들이 보면 혀를 내두를” 것이요, “나라의 빛(國之光)”이라고 하여 이씨의 열행이 외이를 감짝 놀라게 만들며 조선을 존경하게 만들만한 파급력을 가졌으며 게다가 그런 여인이 조선에는 수천, 수백 명이 된다고 과시하고 있다(김남이 2003, 310)

에서 누가 지배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강한 엘리트주의적 경향을 갖게 된다. 즉 사려 깊고 자격을 갖춘 개인이 지배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족주의적 경향을 갖게 된다. 열정을 가진 다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서 버크 역시 귀족정치는 최선의 인간에 의한 지배를 뜻했다. 민주정치는 민중에 의한 지배로서 혁명가의 선동에 의해 감정에 지배되기 쉬운 정치인 것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 존 애덤즈는 귀족을 “왕이나 민중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보면서 “내가 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한 사람의 세습적 귀족이나 누군가 특별히 한정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속의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귀족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연이 만든 것이요, 우리가 폐지할 수 없는 구분”이라고 하였다(Viereck 1981, 28). 이들은 인간들의 능력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사회 내의 불평등 상태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 반대하게 된다.

반면 수구 이념은 귀족 등 사회의 주류가 지지하는 이념이 아니며 널리 일반인의 공감을 얻는 이념도 아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근본주의가 갖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특정사회계층에 호소한다는 점이다(Bruce 1989, 14). 근본주의는 특히 주변적(secondary) 남성 엘리트의 운동이다(Lawrence 1990, 100).¹⁹⁾ 많은 경우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고용의 상태로서 “실패한 엔지니어, 불만이 있는 의사, 의미없는 공공 업무를 하는 봉급 못받는 관리”(Lawrence 1990, 197; Antoun 2001, 22)

19)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를 주도하는 신보수 강경파는 주변인이 아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종교교육 강화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입장과 거의 일치한다(김지석 2002). 김지석에 의하면 신보수 세력은 1990년 중반 의회를 장악해 이른바 보수혁명을 이룬 뒤 부시 정권을 창출하는데 성공했는데, 60년 이상 계속된 민주당의 의회 지배를 단숨에 뒤집은 94년 중간 선거의 배경에는 근본주의 기독교의 성장이 있었다. 이렇듯 보수파는 필요와 실리에 따라 근본주의와 연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등이 주요 지지계층이 된다. 로렌스(Lawrence)는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근본주의자의 충원이 “모두 주변화된(marginalized) 남성 엘리트들”(Lawrence 1990, 236)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브루스 역시 근본주의에 있어서 ‘주변화’가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근본주의자는 이중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 최근 권력에서 배제되거나(미국 기독교) 또는 최근 신분상승은 했지만 그들의 높아진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차단된 상황(이슬람)(Mernissi 1993, 237)에 처한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이 된다.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의병항쟁도 주로 지방의 선비들에 의해 추동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의 변화에 전혀 무지하여 완고한 사람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유인석의 경우 서구의 정치, 문화에 대해 잘 알았으며 의병활동을 위한 내부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병활동을 하려고 하였다(박민영 1995, 38).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역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구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불공평한 세계체제에 의해 거부당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Bruce 1989, 14-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이념은 사회 발전 특히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도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오토만주의는 기업인과 중간계급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터너(Turner)에 의하면 이들은 단지 정부, 종교, 전쟁, 농업 등 네 가지 직업만 인정했다(Turner 1974, 131). 또한 이들은 외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을 경멸함으로써 경제약화를 가져왔다(Bruce 1989, 45). 베버(Weber)에 의하면 이들은 ‘부르주아적 상업적 공리주의’를 경멸하는 봉건적 인식을 공유했다(Weber 1968, 1106). 따라서 상업과 산업은 비모슬렘의 과제로 되었다. 그 결과 경제의 실패를 가져왔고 이것은 다시 실패의 악순환이 되었으며²⁰⁾ 결국 1875년 오토만제국은 실

패를 선언했다(Bruce 1989, 45).

5. 맺음말

현재 한국사회에서 ‘수구’라는 개념은 보통 ‘보수’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언급되며, 대체로 불합리하거나 완고한 것이라는 함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시사적 논쟁을 통한 것이며 학술적 논의는 그동안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수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더불어 수구의 대안적 개념, 그 이념의 특징, 지지기반 등을 보수와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구의 대안적 개념들로는 반동주의, 근본주의, 정통주의를 들 수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이분법적 세계관을 들 수 있다. 보수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체계 내지 질서로 보는 반면 수구적 입장은 세계를 두 개의 영역으로 본다. 자신의 영역을 이상적 세계로 나머지 영역은 열등한 세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구파의 과제는 자신의 이상적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다. 이렇듯 수구의 두 번째 특징은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주의는 유토피아니즘에 반대하는 이념이다. 보수주의는 인간 이성을 불신하므로 이러한 이성애 따른 이상사회 건설을 의심한다. 그러나 수구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정치상 이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보와 다른 것은 유토피아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으며 그 목표는 ‘좋았던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다. 셋째 보수는 실리를 중시한다면, 수구는 원리를 중시한다. 보수주의자는 실리 이외

20) 왜냐하면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면 그 나라의 부자들은 외국에서 상품을 사들이고 이것이 다시 그 나라의 산업을 약화하는 악순환이 되었기 때문이다(Bruce 1989, 45).

에 고수해야 할 원리가 없으므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수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리가 있으며 특히 경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오류이며 완전한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수구는 경전의 원리를 고수하기 위해 실리의 문제 뿐 아니라 생사의 문제까지 뛰어 넘고자 하는 극단주의가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보수는 안전을 중시하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대세에 따른다. 그러나 수구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변화를 용인하지 않으므로 극단적이다. 마지막으로, 수구 이념은 본래의 원칙과 전통의 고수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다른 모든 개혁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여성문제에 대해서도 완강히 변화를 거부한다. 보수주의자 버크가 여성을 존중하는 영국의 오랜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왕족의 여계 세습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인 것을 놓고 볼 때 보수주의자의 여성차별은 수구만큼 심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반면 수구 이념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며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며 때로는 여성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된다. 이러한 수구 이념을 지지하는 계층은 사회 내의 주류가 아닌 주변화된 남성이다. 보수주의는 귀족 등 사회 주류 계급이 지지하는 이념이라면 수구 이념은 실업자이거나 불완전 고용의 상태의 남성 엘리트들에 의해 지지된다. 또한 이 이념은 경제적인 면에서 발전을 저해하였기 때문에 도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역사에서 이러한 수구 이념은 반(反)자유주의, 국가주의, 근본주의의 형태를 띠어왔다고 생각된다. 구한말 수구파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비롯하여 서구의 근대적 정치이념과 제도를 불신하고 전통적인 군주제를 옹호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유교적 신념 때문으로 유교 근본주의, 정통주의, 반동주의의 특징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정권은, 당시 형식적 민주주

의에 불과하다 하여 서구에서 보수적이라고 비판받는 자유주의 내지 자유민주주의조차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선거의 자유, 삼권분립, 정당정치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마저 부정하고 일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등 국가주의적 이념을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 이러한 국가주의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절대충성, 한국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 이념에 대한 반대 등이 그 특징으로, 시대를 거꾸로 올라간 반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서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 보수 이념은 자유주의, 반공주의, 실용주의라고 생각된다. 자유주의는 구한말 개화파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뉴라이트의 이념으로 널리 홍보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의 강조 뒤에는 민중에 대한 불신과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다. 사회주의는 대표적인 유토피아니즘으로, 보수주의의 반유토피아적 입장을 고려할 때 보수주의가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하겠다. 실용주의는 진리나 원칙의 존재를 부정하며 오로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념이다. 따라서 실용주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공동체나 사회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살피게 하고 국민의 탈정치화, 우민화를 꾀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실용주의를 자신의 정치 이념으로 삼아 국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보수세력의 절대지지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9월 19일 접수, 2009년 11월 4일 채택)

참고문헌

- 강정인. 1997. “보수와 진보.”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문학과지성사
- 강재연. 1983. 『근대한국사상사연구』. 서울: 한울.
- 김남이. 2003. “의암 유인석의 민족자존론과 여성 인식.” 『대동한문학』. 18.
- 김영선. 1964. “진진적 보수주의: 현대보수주의의 내용에는 진보의 원리가 포함 되어 있다.” 『사상계』. 12. 2.
- 김형찬. 1993. “한국 사상이 평전: 유인석.” 『시대와 철학』. 4. 한국철학사상사연구회
- 남시욱. 2005. 『한국 보수세력 연구』. 나남
- 양승태. 1994. “한국 보수주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시론.” 『한국정치학회보』. 28(2).
- 유인석. 1913. “우주문답.” 서준섭, 손승철, 신종원, 이애희 역. 1984. 『의암 유인석의 사상 우주문답』. 서울: 종로서적
- 유인석. 의암학회(편). 2006. 『국역 소의신편』. 춘천: 의암학회
- 윤대식. 2002. “의암 유인석의 척사와 실천: 소의신편과 우주문답에 나타난 사상적 변화.” 『동양정치사상사』. 1(2).
- 이극찬. 1964. “수구와 반동을 극복한 보수당: 영국노동당과 보수당.” 『사상계』. 12. 10.
- 이나미. 2001. 『한국자유주의의 기원』. 책세상.
- 이나미. 2002/2003. “한국 보수주의 이념의 내용과 의미.” 『평화연구』. 11(1).
- 이수석·김병근. 2002. “법인가 전통인가-몽테스키외와 버크.” 『인간과 정치사상』. 인간사랑.
- 이태진. 2003. “한국 근대의 수구·개화 구분과 일본 침략주의.” 『한국사시민강좌』. 33. 일조각
- 장현근. 2003. “중화질서 재구축과 문명국가건설: 최익현·유인석의 위정척사사상.” 『정치사상연구』. 9.
- 최치원. 2008. “한국에서 보수주의적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 한국정치사상

학회 학술대회. 2008.9.20

- 홍덕률. 2003. “한국적 보수의 위기.” 『황해문화』. 38.
- Antoun, Richard T. 2001. *Understanding Fundamentalism*. Walnut Creek: Altamira Press.
- Bruce, Steve. 1989. *God Save Ulster: The Religion and Politics of Paisley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ruce, Steve, 2000. *Fundamentalism*. Cambridge: Polity.
- Burke, Edmund, 이태숙 역.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한길사. 2008.
- Griffin, Roger, & Feldman, Matthew. 2004. *Fascism*, Routledge.
- Grubel, Monika, 강명구 역. 2007. 『유대교』. 예경.
- Harbour, William R. 정연식 역. 1994. 『보수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Lawrence, B. B. 1990. *Defenders of God: The Fundamentalist Revolt against the Modern Age*. London: I. B. Tauris.
- Liotard, Jean-Francois. 이현복 역. 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서광사.
- Mernissi, F. 1993. *Islam and Democracy: Fear of the Modern World*. London: Virago.
- Munson, Henry. 1984. *The House of Si Abd Allah: The Oral History of a Moroccan Famil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Ruthven, Malise. 2004. *Fundamentalism: the Search for Mea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 Straton, J. R. 1924. *Searchlight*, 7/12
- Turner, B. S. 1974. *Weber and Islam: A Critical Stud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Viereck, Peter. 김태수 역. 1981.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태창문화사.
- Weber, M. 1968.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dminster Press.

<언론자료>

김지석. 2002. “근본주의.” 『한겨레』. 2002. 9. 27.

Characteristics of 'Sugu' Ideology:
Focused on Difference with Conservatism

Na-mi Lee

'Sugu,' in other words 'adherence to tradition,' generally means irrational or stubborn thought - or attitude - in present Korean society. Sugu is usually compared with conservatism, which is thought to be more rational or flexible than sugu. Sugu has been, however, commented in journalism in general, not in the academic world. Therefore I wish this study would promote academic discussion on the subject.

Similar concepts of sugu might be 'reactionism,' 'fundamentalism,' and 'orthodoxism.'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is, first, an idea of 'dual world.' On the other hand conservatives think the world is one orderly system. According to sugu believers, their world is ideal and other world is evil. Therefore sugu believes in 'utopia,' which does not exist in conservatives' mind. Because conservatives don't believe in utopia, they tend to be utilitarians, but sugu believers generally are fundamentalists who sometimes become extremists. Another characteristic of sugu is sexism, which is not adhered to by conservatives.

Sugu ideology is generally followed by 'marginalized' men in society. On the other hand, conservatism is an ideology of upper class. In many cases sugu ideology is neither practical nor useful to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one of the causes of its decline.

Key words: sugu, conservatism, reactionism, fundamentalism, orthodoxism